

김영훈 회장, UAE 글로벌 에너지포럼 참석



세계에너지협회(WEC)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이 UAE를 방문해 제2회 '글로벌 에너지 포럼'에 패널리스트로 참석하고, UAE 정부 및 2019 아부다비 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원회 핵심 인사들을 만나 총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김 회장은 10일 UAE 아부다비 원전을 방문한데 이어 11일에는 아와이다 무르세드 알리 알 마라 아부다비 에너지국장 등을 만나 2019년 아부다비에서 진행될 제 24회 WEC 세계에너지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김 회장은 또 12, 13일 양일간 열린 글로벌 에너지 포럼에 CEO 특별 토론회 세션 유일한 아시아인 패널로 참석했다.

박지원 부회장, 2018 CES 참관



박지원 두산 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진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8년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를 참관했다.

이번 전시회 참관에는 그룹 CTO인 이현순 부회장과 CDO(Chief Digital Officer) 형원준 사장, 동현수 두산사업부 사장,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스카프 박두산박 사장 등 최고 경영진이 동행했으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글로벌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해 그룹의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혁신(Digital transformation)에 접목할 아이디어를 찾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대거 전시회에 참석했다.



원동준 인하대 교수 (2025년 미래 100대 차세대 주역)



블록체인이 최근 핫이슈인데 미래엔 전력거래시스템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분산전원이 증가하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블록체인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독립형 전력계통 시스템을 의미하는 '마이크로그리드'를 연구하는 원동준 인하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블록체인이 주목받고 있지만 전력거래 플랫폼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금은 전력기업들이 전력시스템을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전원이 증가하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각각의 분산전원을 서로 연결할 수

“전력시스템도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

신재생 확대엔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분산·자율형 전력망 필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블록체인이 그 대안 중 하나라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한국전력이 대학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거점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해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플랫폼을 연구하고 있다.

원 교수는 "블록체인이 아니라도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늘린다고 밝힌 만큼 전력계통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집중하고 있고, 불안정해지는 전력계통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건지는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전력공급 시스템이 마이크로그리드와 같

은 분산전원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형 발전소를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하고 전기를 송전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엔 전기를 쓰는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 전국에 구축한 마이크로그리드를 서로 연결해 전기를 거래할 수 있게 되면 전력 계통도 한층 안정화된다.

원 교수는 이미 10년 전부터 마이크로그리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고, 국내에선 몇 안 되는 마이크로그리드 전문가 중 한명으로 평가

마이크로그리드는 소규모 분산전원과 부하의 집합체로 독립운전이 가능한 전력망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전원의 확대 보급에 따른 전력망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마이크로그리드와 같은 분산·자율형 전력망이 필수적이고, 에너지저장장치, 펌프스, 군부대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기차 기술 등을 융합한 스마트시티 레벨의 대규모 계통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로 진화하고 있다.

네비건트리서치에 따르면 마이크로그리드 시장 규모는 100억 달러에서 2025년 4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마이크로그리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원 교수는 강조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그리드의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그만큼 마이크로그리드는 어떤 시스템과도 연동이 가능하고, 미래 전력시스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반 기술이기에 때문입니다. VPP(가상발전소),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제로에너지타운, 스마트공장, 구역전기사업 등도 마이크로그리드를 기반으로 하죠"

그는 또 "신재생에너지, ESS, EMS, 전기차 기술 등이 융합된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은 새로운 에너지 시장 창출과,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래 전력망은 여러 개의 마이크로그리드를 다중으로 연결하는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자율형 구조로 새롭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대용 기자 wee@

전기사협회 네트워크

경남도회, 신년인사회·시산제

경남도회(회장 김성진)는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경남도회 임원과 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신년인사회 및 발전기원제"를 갖고 임·위원들과 신년인사를 나누는 한편 남해 금산에서 첫 정기산행을 실시하며 "2018년도 시산제"를 개최했다.

경남도회는 신년인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올해 경남도회 소속회원과 협회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발전기원제를 지냈다.

아울러 남해 금산에서 개최한 첫 정기산행과 2018년 시산제에는 김성진 회장을 비롯한 산악회원 40여명이 참가, 올해 산행의 안전과 나날대박을 기원했다.



“양적·질적 성장을 올해의 목표로”

엘비라이프, 신년회·3만 구좌 달성 기념행사

전기사공제조합이 출자한 상호회사 엘비라이프(대표 임세환)는 지난 9일 '신년회 및 3만 구좌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 소재 전문영업점의 지점장과 매니저 등 60여명이 참석해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장하는 서비스를 올해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마음을 새롭게 다졌다.

아울러 2017년 우수직원 및 영업점에 대해 포상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임세환대표는 신년사에서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질적 성장"이

라는 경영목표 아래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며 "올 한 해도 적극적인 영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창립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 엘비라이프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약 9000구좌의 신규회원 가입실적을 기록, 누적으로 3만구좌를 돌파했다.

또 상호업계에서는 최초로 '고객만족경영' ISO 10002 인증을 획득해 한층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윤대원 기자 ydw@

“내구연한 초과 기자재 교체 의무화 추진”

곽기영 전기조합 이사장, 신년인사회서 밝혀

곽기영 전기조합 이사장은 11일 "기존 건물에 설치된 수배전반, 변압기 등 내구연한을 초과한 기자재에 대해 교체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안을 관계당국과 협의, 임기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 이사장은 이날 경기도 분당 조합회관에서 열린 '2018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정부의 SOC 예산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20조원 이하인 17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원 이상 감소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올해는 거대한 변화의 초입이다.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 등 적응하고 대응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전력기기 생산업체들도 에너지전환 정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곽 이사장은 전기산업계에 이택상주(麗澤相注), 즉 두 개의 잇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주며 마르지 않는 것처럼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생협력을 통해서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서 "우리 앞에 닥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선 이택상주의 정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신기술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설계가 필요하다"며 "과감하고 꾸준한 기술개발과 품질경쟁을 통한 정도경영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자"고 강조했다.

올해 행사에는 장세창 전기산업진흥회 회장, 양규현·원일식 전임 전기조합 이사장, 최전남 자동제어조합 이사장 등 100여명의 조합원사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했다.

송세준 기자 21ssj@



“견적, 적산 시스템은 아성정보 COST로 앞서 나가십시오.”

전기적산통합(전기, 통신, 소방) CAD파일도면 물량적산까지

- 국내최초 특허출원 적산프로그램, 획기적인 AutoCAD파일 도면물량적산까지
- 관급, 사급, 설계업체에서 시공업체까지 건설관련 전업종에서 사용가능 (전기, 통신, 소방, 설비, 공조, 토목, 건축, 조경, 문화재, 인테리어, 시설물 등)
- 정부(조달청)인증소프트웨어로 적산과 동시에 내역자동작성
- 최신 지재단가, 일위대가, 정부노임, 품셈, 실적공사비등 자료 제공
- 아성정보 홈페이지->자료실->사용설명서에서 동영상설명서 참고하세요

통합내역 / 전기적산 / 설비적산 / 골조적산 / 마감적산 / 노무관리

아성정보(株) 문의전화: (053)751-6715 ■ 팩스: (053)753-5015 ■ 홈페이지: www.asungsoff.co.kr

계기용 변성기 제조 전문기업 “시티이텍”

전기산업 발전에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지난 20년동안 변성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지구촌 전기산업 발전에 디딤돌을 내려놓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다져왔습니다. 앞으로 신기술 선제공으로 귀국 산업을 앞장서겠습니다.

As a global instrument transformer manufacturer, CTE TECH wishe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world electricity industry!

주요 생산품목 (0.72kV~36kV)

- 계기용 변성기 Instrument Transformer
- 부하용 변성기 Loading Transformer
- 정전용 변성기 Static Type
- 분산용 변성기 Distributed Transformer
- 외국용 변성기 Export Transformer
- 수출용 변성기 Export Transformer
- 산업용 변성기 Industrial Transformer

CTE (주)시티이텍 CTE TECH CO., LTD. 경기도 양주시 무봉읍 선현동 32-26 / TEL. 031-767-0037 / FAX. 031-767-0062 / E-mail: cte@ctetech.co.kr 32-26, Mu-bong-dong-mu-bong, Gwangju-gu, Gyeonggi-do, 12774 Korea / www.asungsoff.co.kr